

池莉의 <有了快感你就喊>에 나타난 남성성 고찰

최 은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면서 | IV. 남성성 회복: 남성성에 대한 두 가지 시선 |
| II. 남성적으로 자라나기 | V. 나오면서 |
| III. 위태로운 남성성: '특권'과 '함정'의 사이 | |

I.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성 또는 남성으로 태어나지만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 되도록 배운다. 이는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문화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남자 또는 여자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성별에 부과된 일반적인 기대의 집합, 곧 ‘성역할’의 실행”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역할이란 “일련의 기대되는 행동이며 이 행동과 연관되는 가치”²⁾이다. 이러한 성역할이 사회적인 학습을 거쳐 내면화되었을 때 내 안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을 거쳐 만들어진 남성성 또는 여성성은 남자 또는 여자에게 그들이 지향해야 하는 당위적인 형상, 즉

* 계명대학교 외국어문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부교수

1) R.W.코넬 지음,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50쪽.

2) 줄리아 우드 지음,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74쪽.

이미지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도록 추동한다. 여성성이 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인 것처럼, 남성성 역시 “남자들의 행동에 관한 사회적 규범”³⁾이 되어, 고정된 어떤 것처럼 개인을 지배한다. 이는 외모나 성격, 사적이나 공적인 어떤 활동이나 지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여자에게 무심코 남자답다고 하거나 남자에게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이, 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읽히지만은 않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젠더에 간혀 있음을, 사회문화적인 구성물인 젠더에 의해 형성된 ‘~다움’에 간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예이다.

본고는 여성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영토화하는 지표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성 역시 남성을 억압하고 영토화함으로써 남성자아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정체성 형성을 재단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만약 여자들이 그녀들을 감소시키거나 부인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회화의 작업에 순종해서 희생, 포기, 침묵의 부정적인 부덕을 습득한다면, 남자들 역시 지배적 재현의 감옥에 갇힌 이이자 어쩔 수 없는 희생자들이다. (중략) 남성의 의미로의 남자의 상태는 논쟁의 여지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의 방식으로 강요된 하나의 의무 존재, 하나의 남성다움을 내포한다.”⁴⁾ 즉, 성별을 부여받고 부여받은 성별에 따라 ‘~다운’ 삶을 구성하고 있거나 또는 구성하도록 끊임없이 교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또한 여성과는 다른 측면으로 인간에 대한 가부장제 문화의 억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즐거우면 소리 질러라(有了快感你就喊)>(2003)에서 츠리가 형상화하는 남성가장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남성성의 문제를 들춰낸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번뇌인생(煩惱人生)>(1987)에서도 나타나듯, 그녀는 젠더를 내면화하고 이를 수행하는 남성가장의 삶을 통해 남성성을 사유한다. 주지하다

3) R.W.코넬, 위의 책, 115쪽.

4)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김용숙/주경미 옮김, 《남성지배》, 동문선, 1998, 71쪽.

시피, 중국 신시기 문단에서 남성성에 대한 문제는 ‘진정한 남성 찾기(寻找男子汉)’서사와 맞물려 주요한 화두 중의 하나였다. 이는 당대 이상적인 남성성에 대한 어떤 기준을 보여주면서,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대를 구체화하고 그 변모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성의 자질이 곧 (중국)민족의 자질”⁵⁾이라는 공식을 은연중 드러내기도 했다. 즉, 작품을 통해 당대 이상적인 남성성을 드러내고 여기에 이상적인 중국민족의 어떤 품성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츠리는 지극히 평범한 남성가장의 삶을 통해 남성성을 사유하고 있기에 젠더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만난 남성성의 의미를 풀어보도록 만들어 준다. 주지하다시피, 가부장제 사회에서 젠더는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더 강력하게 작동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남성가장이 젠더를 내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은 젠더에 의해 구성된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탈(脫)젠더의 (불)가능성의 징후를 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고는 <즐거우면 소리 질러라>를 대상으로 하여 남성성의 문제를 사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사회에서 정형화된 남성성을 내면화하여 그 기준에 따라 ‘남자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이다. 남루하지만 ‘사실’이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상과 삶을, 남성가장을 전면에 내세워 묘파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 스스로도 여성작가로서 성공적으로 남성형상을 묘사해냈다는 만족을 드러낸 작품이기도 한데, 대중적으로도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06년에는 드라마 《행복이 오면 소리 질러라(幸福来了你就喊)》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져 방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적인 관심에 비해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극히 미비하다. 대체로 남성가장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데에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바, 주인공 비엔통다(卞容大)를 통해 당대 중국사회 한 평범한

5) 张伯存, <1980年代“男子汉”文学及其话语的文化分析>, 《上海师范大学学报》, 2009年1月, 96쪽 참고.

중년남성의 삶을 읽어낸다. 위엔동양(袁栋洋)은 이 작품을 남성주체의 성장담으로 보고, 비엔롱다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하면서 ‘사내 대장부(男子汉)’로 성장하는 모습을 찾아낸다.⁶⁾ 천옌(沈燕)은 비엔롱다를 남성우월주의의 계승자이면서 피해자로 본다.⁷⁾ 그런가 하면, 신사실 작가로서 작가의 창작특징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특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들 연구는 천착하는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일과 결혼이라는 삶의 두 공간에서 비엔롱다라는 한 남성이 어떻게 삶을 구성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당대 중국남성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본고 역시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 특별히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언급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츠리는 비엔롱다에 대해 “강요를 당할 대로 당한 패기 없는 남자”지만, “무언가를 계속 고수해왔고 추구해왔다.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떠남의 방식으로 자아 지키기와 자아 구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한다.⁸⁾ 여기에서 츠리가 언급한 비엔롱다에게 끊임없이 강요된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지형화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그가 지키고 추구해온 것은 무엇인지, 그의 떠남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성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탈젠더의 (불)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남성성의 문제는 1980년대 이른바 ‘진정한 남자 찾기(寻找男子汉)’ 서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남성성에 대한 사유의 폭을 확장해주리라 기대한다.

6) 袁栋洋, <父子同景与世俗社会下的主题认同>, 《重庆科技学院学报》, 2013年第6期。

7) 沈燕, <男权观念的继承者与牺牲者>, 《牡丹江教育学院学报》, 2012年第1期。

8) 百度百科(baike.baidu.com)의 <有了快感你就喊> 내용소개 참고.

II. 남성적으로 자라나기

젠더의 의미는 사회적 가치, 믿음, 그리고 조직되는 집단적 삶의 선호방식에 따라 다르다.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문화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남성적인 것은 “강하고 야망 있으며 성공적이고 이성적이며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진정한 남성은 “울지 않고 남의 도움도 받지 않아야 한다.”⁹⁾ 당대 중국사회에서 기대하는 남성적인 것에 대한 인식 역시 상술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1980년대 청년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中国青年》에 실린 <兄弟, 愿你具有男子气>라는 글을 보면, 저자는 남자다움의 조건으로 관대함, 강인함, 고생을 참고 견디는 힘, 감정의 조절과 억제력, 책임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글인 <审度你心中的现代男子汉>도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는데, “지식을 추구하고 재능과 학식을 갖추고 있으며, 목표가 장대하고 마음이 굳건하며 용감하게 개척하는 남성”이야말로 “강자”이며 “사나이”라고 정의 내린다.¹⁰⁾

비엔롱다의 아버지인 비엔 아저씨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기대는 남자다움에 대한 이러한 젠더관념을 보여준다. 집 나간 아내 대신 혼자 자식을 돌보아야 했던 비엔 아저씨는 아들을 “진정한 남자”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에 사로잡혀 있다. 비엔 아저씨가 보는 “진정한 남자”의 요건은 아주 명확하다. “비엔 아저씨 생각에 진정한 사내대장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발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는다. 성적이 남달리 우수하고, 말솜씨가 뛰어나다. 서 있을 때는 나무처럼 똑바르고, 앉아 있을 때는 시계처럼 단정하다. 걸을 때는 바람처럼 빠르고 힘차며, 잘 때는 활처럼 구부러져 잔다. 어디서 넘어지든 바로 일어나고, 피와 땀은 흘려도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¹¹⁾

9) 줄리아 우드, 위의 책, 33쪽.

10) 张伯存, 위의 글, 95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그가 아들을 훈육하는 방식은 상당히 전제적이다. 초등학교 시절 한창 유행하던 이름과 다른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그의 요청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외람된” 요청이다. 그 요청을 “헛소리!”란 한 마디로 무시해버리는 아버지 앞에서 우물우물했을 때 그는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심하게 얻어맞는다. 그러나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벽에 똑바로 기대어 서 있어야 한다. 아버지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이른바 진정한 남자로 자라나는 과정이란 아들 비엔롱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인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비엔롱다가 이것을 “고귀한 침묵”으로 승화시켜 이른바 남자다운 완벽한 인격을 증명하는 기제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 읽었던 한 여자 공산당원의 이야기로부터 기인한다. 그는 국민당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차가운 미소로 응대하며 “고귀한 침묵”이라고 외친 여자 공산당원의 이야기에 매료된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있어 완벽한 인격을 표상하는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험겨운 상황에서 그녀를 떠올리며 참아내는 데에서 나타난다. 그가 열두 살이었을 때, 그의 고르지 못한 치열이 못마땅하지만 수술비가 부담이 된 비엔 아저씨는 결국 철사로 직접 그의 치아를 교정하는 ‘수술’을 감행한다.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작업에 그들 부자는 엄동설한임에도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양 입가가 찢겨진 비엔롱다는 침 섞인 피를 툇툇 흘린다. 이 순간 그는 여자 공산당원을 떠올리며 눈물과 비명을 참아낸다. 열세 살 어린 나이 손바닥에 뜨거운 화상을 입었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침묵으로 그 통증을 견뎌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침묵에 대한 그의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극심한 통증으로 그는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중략) 자랑스러운 것은

11) 池莉, <有了快感你就喊>, 《池莉近作精选》, 长江文艺出版社, 2003年, 2쪽.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표기한다.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고귀한 침묵을 유지했다는 것이다.”(2쪽) 이후, 그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던지 화상자국이 남은 왼손에 기대어 “고귀한 침묵으로 모든 것을 막아”내게 된다. “중요한 순간에 비엔롱다는 그저 그의 왼손을 굳게 주먹 쥐기만 하면 완전히 아무 소리로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왼손바닥에 숨겨진 그 상처가 그의 눈 앞에 나타나 그를 부르고 그를 이끌어가 그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부여할 것이었다.”(3쪽)

이러한 그의 모습은 자기검열을 통해 정체성을 발전시켜가는 개인의 일면을 보여준다. 자기검열은 나와 내가 내면화한 다른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다.¹²⁾ 비엔롱다에게 있어 왼손바닥의 ‘상처’는 그가 내면화한 타인의 목소리를 은유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부르는 ‘상처’는 억압과 공포를 참고 견디면서 냉소로 응대하는 한 여자공산당원이 이를 고귀한 침묵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목소리일 것이다. 여자 공산당원의 목소리는 완벽한 인격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대변한다. 때문에 비엔롱다가 그 목소리에 이끌려 간 순간, 다시 말해, 그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동일시했을 때 자신감과 긍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비엔롱다에게 있어 침묵은 진정한 남자, 완전한 인격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인 셈이다.

침묵을 남성성의 준거로 삼는 비엔롱다의 심리는 성인이 된 후 그가 침묵을 ‘숭상’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침묵이 갖는 의미는 그가 남자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긍정하는 데에서 가시화된다. 남자로서 그는 “유리가공협회 비서 겸 사무실 주임, 열 살짜리 남자에 하

12) 미드(Mead)에 의하면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대상으로서 자기 인식하기와 검열하기이다. 대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된 개인은 자신을 검열할 수 있다. 이러한 검열하기를 지칭하여 그는 내적대화라고 언급했다. 내적대화는 자신이 내면화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들어 있는 대화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내적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며 그렇게 보여야 하고 느껴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을 스스로 상기시킨다. 줄리아 우드, 위의 책, 219쪽.

오한(浩瀚)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비엔 아저씨의 아들, 기형 비만증을 앓고 있는 누이의 오빠, 그의 아내 황신레이(黃新蕾)의 남편, 그의 장모 천(陳)아주머니의 사위”(3쪽)로 규정된다. 이러한 사회적 각색 외에, 그는 자신을 “지능지수와 감성지수 둘 다 괜찮은 남자,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남자, 바른 뜻을 품고 있고 책임질 줄 아는 남자, 글쓰기 재주가 뛰어난 남자,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자”라고 정의한다. 물론 “운은 그다지 좋지 않은 남자, 큰 뜻을 실현하기 어려운 남자, 홍안지기(紅顏知己)에게 보답할 경제력과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남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스스로 “괜찮은 편”이라고 만족한다.(3쪽) 매일 침묵하며 ‘진심을 다해’ 자전거를 타고서 그가 사는 동네와 직장과 아버지의 집과 장모의 집을 오가는 그의 일상은 그를 규정하는 역할을 그가 별다른 불만 없이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엔롱다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비엔롱다가 이처럼 남성젠더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 구성된 그의 삶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말을 빌리자면, 영토화된 삶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우리 삶은 견고한 분할선에 의해 분할된 하나하나의 절편들, 즉 ‘영토’로 구성된다.¹³⁾ 여기에서의 삶은 “개인의 뜻에 반하여 특별히 강요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통념과 상식의 형태로 습득된 습속에 따른 경직된 삶이고,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물질적(molaire)인 삶이다.”¹⁴⁾ 집과 일터를 오가고, 사회적인 관계망을 오가는 그의 일상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삶으로, 영토화된 삶인 것이다. 의심할

13) 여기에서 영토란 그랜분자적인 거대 집합들(국가, 제도 계급)뿐만 아니라 집합의 원소로서의 개인들, 개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로서의 느낌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견고한 분할선에 의해 다 분할되어 있다. 들뢰즈, 가타리 지음, 김재원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3, 372쪽.

14)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13, 610쪽. 이진경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물질”이라는 말을 다양성을 제거하여 거대하고 단일한 통일체로 귀속시키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같은 책, 228쪽.

나위 없이, 이는 비엔퉁다가 젠더를 내면화하면서 구축된 것이다. 츠리는 특별히 그에게 부여된 각색과 삶을 세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정형화되고 규범화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전시하고, 나아가 그러한 삶에 대해 비엔퉁다가 별다른 불만 없이 긍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비엔퉁다가 내면화한 젠더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엔퉁다가 이처럼 남성젠더를 깊이 내면화하고 남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강한 동일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별개로, 그는 규제적 이상으로서 남성성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 상술했듯, 비엔 아저씨는 그를 ‘진정한 남자’로 키우고자 했다. 그런 기준에 의해 양육된 비엔퉁다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완성하고자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로부터 고립성, 내면성, 감수성, 유약성 등 소위 여성성의 일면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혼자 책 보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며 감성지수를 지능지수만큼이나 마음에 두는 그의 모습들은 이상적인 남성성과는 거리가 있다. 비엔 아저씨가 진정한 남자의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씨가 뛰어나다”에서도 나타나듯, 남성성은 침묵보다는 웅변에 더 근접한다는 것도 비엔퉁다가 전시하는 남성성이 일면 여성화된 남성성임을 보여준다. 전체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해 진정한 남자로 자라도록 양육되고 스스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분투해온 그가 오히려 여성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남성성의 자질들이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임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것임과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 규제적 이상으로서 남성성이 남성주체에게 명시되고 강요될 때 야기되는 아이러니와 이율배반이기도 하다.

요컨대, 츠리는 전체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해 ‘진정한 남자’로 양육되고, 남성젠더를 깊이 내면화함으로써 가장 정형화되고 규범화된 소위 모범적인 남성(가장)으로 규정될 수 있는 비엔퉁다가 오히려 여성화된 남성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남자’라는 규제적 이상으로서의 남성성을 추구해온 과정에서 배태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

Ⅲ. 위태로운 남성성: ‘특권’과 ‘함정’의 사이

앞서 서술했듯, 남성적으로 자라나기는 결국 주어진 역할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역할의 내면화는 남성주체의 삶을 젠더에 간히도록 이끈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과 달리 역할의 성실한 내면화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남성적 역할의 수행에 대한 가치평가가 여성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¹⁵⁾ 여기에 남성성의 양가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남성성은 남성자아를 젠더에 간히도록 이끄는, 즉 남성자아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성자아가 우월성과 지배성을 전유하도록 한다.

남성성의 이러한 양가성은 남성적 역할의 기준이 경제력과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남성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성은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¹⁶⁾한다. 이는 남성성의 가부장적 이념형 중 하나가 가족부양자로 규정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¹⁷⁾ 이영자에 따르면, “이 남성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가족을 (될수록 잘) 먹여 살리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돈벌이와 직업적 성공에 몰두하도록 추동한다.”¹⁸⁾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남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다.

비엔롱다는 이러한 남성성을 전형적으로 구현한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가족의 삶이 그 도시 안에서 중간 이상이고, 그 자신

15) 줄리아 우드, 위의 책, 75쪽.

16) 같은 책.

17) 성의 현대적 조직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세 가지 제도는 국가, 노동시장/노동현장, 가족이다.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남성성의 가부장적 이념형은 남성을 공적 영역의 주체, 가족부양자, 가부장으로 규정한다. 이영자,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의 정치>, 《성평등 연구》 5, 2001, 85쪽.

18) 같은 글.

의 삶은 그의 아버지 대보다는 나아졌으며 그의 아들은 그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그의 기대로 설명된다. 즉, 비엔룽다는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있다는 데 남성으로서 그의 자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선물'을 들고 돌아오는 날 비엔룽다의 모습과 그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만약 행사에서 선물이라도 주면,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다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황신레이 근처로 선물을 던졌다. 그의 동작은 그가 선물 따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황신레이는 언제나 바로 깨달았다. 그녀는 상냥한 얼굴로 그를 힐끗 보았다. 그럼 비엔룽다는 소파에 기댈 수 있었다. 두 다리는 테이블에 짝 걸쳐 두는데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황신레이는 그에게 차를 갖다 주거나 아들에게 갖다 주라고 시킬 것이다.(4-5쪽)

집에 들어서자마자 '선물'을 툭 '던지는' 것이나 테이블에 두 다리를 짝 뻗어 올리고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는 모습은 가장으로서 그가 느끼는 자랑스러움이 가시화된 것이다. '선물'에 대한 아내의 상냥한 표정과 아내 또는 아들이 갖다 주는 차는 가장으로서 그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가족들의 존중이자 긍정이다.

문제는 가부장제 가족부양자로 생산/재생산되는 남성성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되는 위태로움이다. 가족부양자로서 남성성이 규정됨으로써, 남성가장은 곧 경제력과 동일시되고 그의 가치는 경제력, 즉 물질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 비엔룽다를 대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이에 대한 사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비엔룽다의 아내는 남편의 생일은 잊은 지 오래이며 오로지 아들의 생일만 꼬박꼬박 챙긴다.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비엔룽다를 황신레이는 저녁밥 대신 썰렁한 눈빛으로 맞이한다. 비엔룽다는 자신을 대하는 아내의 눈빛에 항상 비웃음이 어려 있음을 느끼고 불편해한다. 그의 아버지 비엔 아저씨는 명품으로 자신에게 '효도'하지 않는 아들에게 불만이고, 아들이 가져오는 돈다발에 눈이 반짝인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

를 결정하는 것은 ‘선물’의 여부이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돈’의 액수인 것이다. 비엔롱다에 대한 가족들의 이러한 태도는 가장으로서 권위나 가치 긍정이 탈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력에 연동된 남성성의 위태로움과 허구성을 드러낸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남성성의 가치고양이 경제력과 연동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이 단지 남성이장이 응당 기대하는 가치긍정이나 권위확보를 훼손당함으로써 생기는 남성성의 위태로움을 넘어선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츠리가 포착하고 있는 지점은 남성성이 남성자아에게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는 특권이 되기도 하지만, 억압이 되기도 한다는 데에 있다. 츠리는 이를 황신레이가 비엔롱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후 이들 부부의 관계 지형을 통해 보여준다. 황신레이는 본래 신화서점의 한 점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그녀가 자발적으로 신화서점의 도서 도매점을 맡아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정도에까지 이른다.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된 후,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대신 부모님에게 고급 선물을 하고 아이는 좋은 학교에 보내며 남편에게는 일제 시계를 선물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비엔롱다는 아내를 피하고 이러한 남편을 황신레이는 애써 무시한다. 서로가 서로를 없는 듯 대하는, “그들 부부간 특유의 소리 없는 그런 대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엔롱다는 아내의 성공을 기뻐하거나 축하하기는커녕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그들 사이의 간극은 한층 더 깊어지고 숨겨져 있던 갈등은 폭발하고 있다. 왜 그런가. 다음 인용문을 보자.

황신레이의 사심 없는 대가다운 품성은 비엔롱다를 몹시 부끄럽게 만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일본제 이 시계가 맘에 들지 않았다. 일개 비서 겸 사무실 주임이 일할 때 수시로 자기 손목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황신레이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던 비엔롱다, 황신레이보다 훨씬 학력도 높은 비엔롱다, 황신레이보다 일도 훨씬 잘 풀렸던 비엔롱다, 그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날카로운 경멸과 타격을 받고는, 결국 황신레이의 조소하는 눈길을 이해하게 되었다.

(중략) 이 사회의 본질은 교환관계이다. 황신레이는 상냥한 마음을 물질로 대신하고, 그의 자존을 교환하고 거세한다. 이는 비엔룽다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여자는 우선 연연해하고 기대하고 유순한 것을 이해해야지, 기회가 왔다고 바로 남녀관계를 전복해버리고 이런 잔혹한 전복으로 남자의 생활태도를 조롱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황신레이의 '조소하는 눈길'과 비엔룽다가 느끼는 '남녀관계의 전복'에는 남성성의 가장 큰 가치가 경제력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깔려있음을 설명한다. 아내는 경제력으로 남편의 성역할을 가치 판단하고 규정지으며, 경제력으로 성역할이 규정된 남편은 바로 그것을 통해 남편을 넘어서려는 아내를 용납하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유순한 아내를 기대한다. 즉, 아내와 남편 모두 경제력(물질)으로 기표화된 남성성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제력은 남성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억압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아내의 경제적인 성공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비엔룽다의 심리와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경제력과 연동된 남성성의 이러한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아내의 경제적인 성공에 대응하는 비엔룽다의 태도와 그것이 그에게 주는 억압은 남성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배태된 남성우월의 식의 소산이다. 아내의 경제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비엔룽다의 심리에는 가부장으로서 우월감을 훼손당한 남성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가부장제 사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남녀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심리이기도 하다. 비엔룽다는 이로 인한 피로감과 억압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으로서의 우월감과 그로 인한 피로감은 그가 실직에 대처하는 그의 태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 그가 혼신을 다해 구축한 협회가 공중 분해되고 자신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무실을 나오고, 다음날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간에 맞추어"(10쪽) 집을 나선다. 비엔룽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럼 사무실을 나온 것은 아무 일도 없는 ‘척’ 자신을 위장한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남자란 넘어진 후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바로 자기가 넘어지지 않은 척 꾸며야 한다”(72쪽)는 데 있다. 실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에게 실직을 알리지도 않은 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서 남성으로서 그의 존재 가치가 훼손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남성가장의 자존감이 묻어난다. 동시에, 남성성의 훼손이 경제력 강화에 따른 여성성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기도 하다.

의심할 바 없이, 가족부양자로서 생산/재생산되는 남성성은 남성에게 지배력을 부여하는 특권이다. 하지만, 비엔롱다가 보여주듯, 그것은 또한 ‘함정’이기도 하다. 부르디외는 남성의 특권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남성성을 보여야 하는 의무를 남자들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아내의 경제력인 성공을 애써 외면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비엔롱다, 실직에도 아무 일 없는 듯 여전히 ‘출근’하는 비엔롱다, 츠리는 이러한 비엔롱다의 모습을 통해 남성성을 내면화한 남성주체가 ‘특권’과 ‘함정’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부장제의 소산임을 말이다.

IV. 남성성 회복: 남성성에 대한 두 가지 시선

비엔롱다가 전시하는 위태로운 남성성은 가족부양자로 규정된 남성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주목할 것은 그가 취업을 통해 자신의 위태로운 남성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남성성에 대한 츠리의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엿보인다.

하나는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비틀기를 통해 탈(脫)남성성에 대한 기대 또는 징후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실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

19) 피에르 부르디외, 위의 책, 72쪽.

할 때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진지함과 성실함 그 자체였다. 이력서를 내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착실하게 공들여서 준비했다. 그는 좋은 컴퓨터용지에 퇴색되지 않은 먹색 잉크로 직접 자신의 약력을 적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력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취업은 “즉흥적”인 결과로 얻어진다. “즉흥적”으로 쓴 지원서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탁월한 업무능력에 문화적인 소양까지 고루 갖춘, 현실의 비엔롱다보다 세 살 어린 비엔롱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허구적인, 가짜 비엔롱다로 그는 취업에 성공한다. 가짜 비엔롱다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그가 취업하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진짜 비엔롱다에 관련된 증명들을 다 없애버린다. 요컨대, “누구나 휘둥그렇게 눈을 뜨게 될 정도로” 성공적인 그의 취업은 “성실하게 공들여 준비”하고 일련의 진지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술김에” 지원하러 가서 “즉흥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접수원 아가씨와 “농담”을 하며, 작성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를 만든 결과이다. 비엔롱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장난”과도 같다. 그런데, 그 “장난”은 오히려 취업이라는 진실한 결과로 되 돌아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회복한다. 이는 그에게 ‘진정한 남자’로서 다시금 자존감을 부여해준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회복한 ‘진정한 남자’로서의 남자다움은 일면 그가 추구해온 남자다움을 벗어났을 때 재정립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고귀한 침묵’을 남자다움의 근간으로 여기고 살아왔을 때 오히려 남자로서 자존감을 훼손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그것을 버려야 하는 지경까지 몰린 반면, 성실함과 진지함을 버리고 대신 즉흥성과 거짓을 취했을 때 그것들은 남자로서 그의 가치와 정체성 확립에 더 큰 보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츠리는 이를 통해 경제적인 성공을 규제적 이상으로 삼는 당대 지배적 남성성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남성성이 경제력과 맞물려 있을 때 그의 성실하고 진지한 품성은 남자다움과 공생하지 못한다. 그가 다시 회복한 남자다움은 한층 더 강화된 경제력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지만

이는 결국 물질화된 남성성을 호명한다. 티벳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차라리 그 일자리를 버리라는 아내의 눈물과 호소를 그저 말뿐이라고 치부하며, “일 년에 10만 위안 넘게 버는데, 누가 원하지 않겠냐”는 서술로 눈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배적 남성성으로 자리 잡은 남성(가장)의 내적 외적인 자질과 준거는 결국 물질로 기표화되어 버리는 남성(가장)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즉, 츠리는 비엔룽다가 남성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장난”처럼 회화화하고 그 안에 내재된 남성성의 아이러니를 들추어냄으로써 당대 지배적 남성성을 비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성을 회복한 비엔룽다가 무한을 거부하고 티벳으로 떠남을 선택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거주 공간인 무한은 그에게 남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진정한 남자로서의 남성성을 요청하고 있다. 그가 무한을 “혐오”하고, “고귀한 침묵”이 싫은 것은 이러한 요청에 호응하여 만들어진 자신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에게 티벳은 일종의 출구일 수 있다. 무한에서 규정된 비엔룽다와는 다른 비엔룽다로 가게 될 공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려는 순간, 그는 왼손을 짝 움켜쥐었다. 비엔룽다는 성공적으로 고귀한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는 이른바 자기의 고귀한 침묵을 혐오했다. 내일 그는 더 이상 이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내일 그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략) 비엔룽다는 변했다. 비엔룽다는 이미 암암리에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 이전의 비엔룽다는 남겨두고 진짜 비엔룽다가 장차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중략) 비엔룽다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비엔룽다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틀림없이 돌아오지 못하겠지?” 비엔룽다는 자기가 확고하게 대답하는 한 마디를 들었다. “응.”(79쪽)

비엔룽다는 티벳으로 향하게 될 자신을 진정한 자신이라고 명명한다. 그래서 혹자는 비엔룽다의 떠남을 “생존방식에 대한 떠남이자 신분(역할)에 대한 떠남”²⁰⁾이라고 풀이한다. 앞서 서술했듯, 츠리 역시 비엔룽다가

“떠남(逃离)”의 방식으로 “자아 지키기와 자아 구원을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츠리가 비엔롱다의 티벳행을 ‘떠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티벳을 일종의 출구로 보는 작가의 시선을 짐작케 한다.²⁰⁾ 이렇게 보자면, 비엔롱다의 떠남은 남성자아를 억압하는 규범화된 남자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재구축하는 탈남성성의 징후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티벳이 상징하는 그의 출구가 진정 그에게 무한의 비엔롱다와는 다른 비엔롱다의 삶을 열어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그가 티벳에서 무한의 비엔롱다와는 다른 삶, 다른 생존방식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천착했을 때 비엔롱다의 남성성 회복과 그의 떠남은 남성성에 대한 츠리의 또 다른 시선을 노출한다. 가부장제 정형화되고 규범화된 남성성에 대한 수궁 내지는 긍정. 그가 떠남으로부터 구성하게 될 남성자아가 본질적으로 여전히 젠더화된 남성이며 지배적 남성성에 복종하는 남성자아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신을 거부하는 그의 모습을 탈남성성적인 징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지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그가 ‘만든’ 그의 모습이 당대 이상적인 남성이자 그가 꿈꾸는 자아라는 점이다. 그가 ‘만든’ 그의 모습을 보자. 글쓰기, 서예, 문학, 운동 등 감성적인 측면의 특기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편의 문학작품을 발표했다. 뛰어난 기획력에 수천 번의 표창장 수상과 모범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그는 이제 겨우 서른여덟 살이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글을 써서 발표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의 꿈이 작품을 발표했다는 경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회적인 성공으로 인식하고 분투해온 그의 바람이 표창장과 모범 노동자라는 이름

20) 郑伟芬, <新写实主义的逃离——池莉《有了快感你就喊》解读>, 《丽水师范专科学校学报》, 2004年第1期, 45쪽.

21) 百度百科에 따르면, “逃离”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다 또는 마음을 정돈한 후 완전히 새로운 태도로 사물을 대하다는 의미이다. 개인이 “逃离”라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삶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잠깐 멈추고 쉬면서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에 녹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만든’ 비엔롱다는 그의 꿈과 당대 지배적 남성성을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가 구성할 남성자아 역시 그에게 부여된 젠더를 수행하리라는 사실이다. ‘티벳’이라는 공간에서도 여전히 그는 가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요청받을 것이며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가장이 누릴 수 있는 권위를 누릴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늙은 아버지와 장애아인 누이를 돌볼 것이다. ‘티벳’의 비엔롱다 역시 그가 떠나고자 했던 생존방식과 신분-역할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말을 빌리자면, 티벳으로의 떠남이 탈주선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경직되고 규범화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주선을 그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탈주선이란 기존의 물적인 “선분적인 선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선을 그리는 것, 삶의 관성이나 타성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선을 그리는 것, 그리하여 경직된 선분적 삶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발견하는 것, 비록 언젠간 다시 새로운 물적 선분이 되고 말지라도,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 선을 그리는 것”이다.²²⁾ 티벳에서의 비엔롱다가 여전히 자신에게 부여된 신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비엔롱다의 떠남은 ‘창조의 선’이나 ‘새로운 선’을 그리지도, ‘경직된 선분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티벳이라는 공간이 그에게 있어 ‘경직된 선분적 삶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을 거부하는 그의 모습을 탈남성성의 징후로 읽기 어려운 이유이다.

무한에 두고 갈 비엔롱다와 티벳으로 가는 비엔롱다의 차이는 침묵의 여부이다. 앞서 서술했듯, 비엔롱다는 자신의 침묵을 온전한 인격체의 표

22) 이진경, 위의 책, 619쪽. 이진경은 선분적인 선이란 점에 의해 절단된 선으로 양끝이 명확하며 시점/중점의 역할을 하는 두 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 선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풀이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선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점을 통과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선분이고, 다른 하나는 개개의 분자적인 움직임이 만드는 유연한 선분이다.(599쪽) 따라서 물적인 선분적인 선은 다양성이 거세된 획일화된 선을 뜻한다.

상으로 승화시키면서 적극성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기실 그 본질은 자아의 억누름에 있다. 그가 침묵하는 상황이 이를 설명한다. 아버지의 전제와 폭력 앞에서 그는 침묵한다. 결혼과정에 내재된 속임수를 깨달았을 때 그는 침묵한다. 부당하게 실직 당했을 때에도 그는 침묵한다. 그가 침묵을 어떤 방식으로 합리화하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남자로서 자신의 가치와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하든, 그의 침묵은 사실 만족스럽지 않은, 불편한 모든 상황을 감내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방식인 것이다. 그가 이것을 고귀한 침묵으로 여기고 스스로에게 우월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속이면서 합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력으로 가시화되는 지배적 남성성을 전유하지 못한 그의 생존방식인 것이다. 츠리는 그가 형상화한 비엔롱다란 인물이 사실은 내면 깊이 열정으로 차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뻗속 깊이 그는 열망과 추구로 가득하다. 그는 줄곧 무엇인가를 고수해왔고 추구해왔다.”²³⁾ 그러나 당대 지배적 남성성은 그가 자유롭게 욕망하는 것을 내뱉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즐거우면 소리 질러라!(중략)이것은 남성성이 넘치는 격언이다.”²⁴⁾ 그래서 츠리는 소위 고귀한 침묵의 타파로부터 ‘진짜’ 비엔롱다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이 그의 경제력 회복 및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침묵을 스스로 타파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그의 첫 일자리가 장모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생긴 자괴감을 안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킬 정도가 되지 못했기에 침묵하며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가 스스로 얻어낸 경제적인 성공이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히기만 하면 돈을 줍는”(47쪽) 시대, 그 흐름에서 남편 비엔롱다는 낙후되었다고 여기고 그를 경멸하는 아내의 조소어린 눈

23) 百度百科(baike.baidu.com)의 <有了快感你就喊> 내용소개 참고.

24) 같은 글.

길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남성성이 경제력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라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한 것이기에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력이 지배적 남성성 구축의 기본 원리임을 새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력이 남성성의 지표로 강력하게 요구되는 한, 그가 재구축하게 될 남성자아는, 어쩌면, 더 공고해진 젠더화된 남성일 것이다. 이것은 물질중심주의가 더더욱 팽배해져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실일 것이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남성주체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다. 비엔롱다에 대한 츠리의 동정어린 시선은 일면 물질중심적인 현실과 이를 좇아갈 수밖에 없는 남성자아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장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황신레이가 보여주는 여성성을 물질성과 동일시하는 것으로부터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물’에 반응하고, 남편을 비웃음어린 시선으로 대하는 것 등은 “허리를 굽히기만 하면 돈을 줍는 시대”에 그 흐름을 주도하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하는 비엔롱다를 멸시하는 황신레이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그녀의 심리표출은 그녀가 물질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아들과 연날리기를 즐기는 비엔롱다와 연날리기보다는 연을 이용해 돈벌이에 골몰하는 황신레이, 그러한 황신레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비엔롱다의 시선은 황신레이의 여성성을 물질성과 동일시하면서 이를 속물화하는 작가의 의도가 가장 형상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황신레이가 물질성과 동일시를 이룰수록 비엔롱다의 부득이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츠리는 비엔롱다(남편/남성)와 황신레이(아내/여성)를 물질성에 의해 이분화하고 비엔롱다의 실패와 불행은 그의 남성성이 물질성에 동일시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나아가 비엔롱다의 위태로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노출함으로써 비(非)물질성과 물질성을 우열의 구도로 설정한다. 물론 츠리는 일상성과 만나는 물질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비엔롱다가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그의 남성성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물질성을 전유하는

황신레이를 속물적으로 묘사하면서 남편을 억압하는 주체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녀 역시 이상적 남성성을 탈일상성으로부터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황신레이가 전시하는 여성성은 비엔롱다가 추구하는 탈물질화된, 어떤 고귀한 남성성을 훼손하는 기인이자 이상적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주요한 장으로 작용한다. 황신레이의 사업적인 성공과 노력이 응당한 의미지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엔롱다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면 이상적인 남성성의 구성이 평범하거나 심지어 열등적인 여성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사방식²⁵⁾에 쓰리 역시 포섭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나오면서

이상, <즐거우면 소리 질러라>의 주인공 비엔롱다를 통해 남성성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재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쓰리는 비엔롱다가 남성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규범적이고 절대적인 이상으로서 남성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노정한다. 이는 남성젠더를 깊이 내면화함으로써 가장 정형화되고 규범화된 소위 모범적인 남성(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엔롱다가 오히려 여성화된 남성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그녀는 비엔롱다가 직면한 남성성의 위기에 특별히 천착하면서, 여기에 내포된 남성성의 이중성을 해부하고 있다. 비엔롱다가 전시하는 위태로운 남성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부양자로 규정된 남성성의 특권이 일면 함정이 되기로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쓰리는 주인공 비엔롱다의 떠남을 통해 규범화된 남성성으로부터의 일탈을 시사하고 있다. 즉, 쓰리는 남성적으로 자라나기라는 규제적 이상으로서의 남성성 추구가 남성자아에게 지배력과 우월성을 전유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억압이

25) 王宇, <新时期之初的“男子汉”话语>, 《文艺研究》, 2006年第5期 참고.

되기도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절대적인 규범으로서의 남성성에 대한 비틀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동시에 당대 지배적 남성성에 대한 부득이한 순응도 엿보인다. 이는 비엔롱다의 떠남이 내포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드러나는 바, 그 억압으로부터 떠남을 선택하여 구성하게 되는 남성자아 역시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젠더화된 남성이며 지배적 남성성에 복종하는 남성자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로 보자면, 비엔롱다의 떠남은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탈젠더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배적 남성성을 경제력과 동일시함으로써 남성성을 단순화했다는 한계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신사실 문학을 추구하는 츠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본다. 일상성의 묘사에 천착하는 신사실 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상에 자리한 남성성은 고귀하고 이상적인 어떤 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그 의미와 가치를 획득한다.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버린 1990년대 중국사회를 츠리는 물질성과 더 강력하게 연동하고 있는 남성성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자면, 츠리는 남성성의 구축-상실-재구축의 과정을 통해 당대 중국사회의 면모와 가치 변화를 아주 솔직하고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츠리는 비엔롱다의 남성성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1990년대 이후 강력하고도 급속하게 물질중심으로 변모해버린 중국사회 청년남성들의 위기와 혼돈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멸렬한 일상으로부터의 상상적인 출구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 사회 남성성의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남성성이 남성자아에게 실천으로 요구될 때 억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이왕의 ‘이상적인 남성 찾기’ 서사와 구별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References>

1. Bourdieu, Pierre. *Domination masculine*. Seoul: Dongmunshen, 1998.
2. Chen Yan. "Heir and victims of male superiority consciousness". *Journal of Mudanjiang College of Education* 1,(2012).
3. Chi Li. "*Chi Li's selection*". Wuhan: changjiangwenyichubanshe, 2003.
4. Gilles Deleuze, Fe'lix Guattari,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Seoul: Saemulgyeol, 2003.
5. Julia T. Wood. *Gendered Lives*. Seoul: CommunicationBooks, 2006.
6. Lee, Gin Gyeong. *Pleasant Philosophical Nomad Crossing Over Thousand Plateau: nomadism 1-2*. Seoul: Humanist, 2004.
7. Lee, Young ja. "The Social Construction of Masculinities and Gender Politics". *Journal of gender equality studies* 5, (2001).
8. Robert William "Bob" Connell. *Masculinities*. Seoul: Imagine Books, 2013.
9. Wang yu. "The new period of the "man" Discourse", *Literature & Art Studies* 5,(2006).
10. Yuan Dongyang, "Father and son with landscape and identify the subject of the secular society". *Journal of Chongqing University of Sceence and Technology* 6, (2013).
11. Zhang Bocun, "Cultural Analysis of Masculine Literature and Its Discourse in the 1980s". *Journal of Shanghai Normal University* 1, (2009).
12. Zheng Weifen. "Escape from New-realism--An Analysis of Chili's Novel Cry out if You're Happy". *Journal of Lishui Teachers College* 1, (2004).

<참고문헌>

1. 부르디외 지음, 김용숙/주경미 옮김, 《남성지배》, 동문선, 1998.
2. 沈燕, <男权观念的继承者与牺牲者>, 《牡丹江教育学院学报》, 2012年第1期.
3. 池莉, <有了快感你就喊>, 《池莉近作精选》, 长江文艺出版社, 2003年.
4. 들뢰즈, 가타리 지음, 김재원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3.
5. 줄리아 우드 지음, 한희정 옮김,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6.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2013.
7. 이영자,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의 정치>, 《성평등 연구》, 2001년 5호.
8. R.W.코넬 지음,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9. 王宇, <新时期之初的“男子汉”话语>, 《文艺研究》, 2006年第5期.
10. 袁栋洋, <父子同景与世俗社会下的主题认同>, 《重庆科技学院学报》, 2013年第6期.
11. 张伯存, <1980年代“男子汉”文学及其话语的文化分析>, 《上海师范大学学报》, 2009年1月.
12. 郑伟芬, <新写实主义的逃离——池莉《有了快感你就喊》解读>, 《丽水师范专科学校学报》, 2004年第1期.

<Abstract>

Up to here, how the masculinity was established and realized by the

protagonist of <Cry out if You're Happy>, Bianrongda(비엔룽다) was examined. Chili(츠리) expresses a skeptical perspective about the masculinity as a normative ideal through the process in which Bianrongda established the masculinity. In addition, she takes notice of the risk of the masculinity Bianrongda faces, and she anatomizes the duplicity of the involved masculinity. Particularly, Chili suggests the departure from the normative masculinity by leaving the protagonist, Bianrongda. However, there appear some cases of conformity to the hegemonic masculinity of the day at the same time. It is the case in that the male ego made up of leaving is also originally a genderized man and the one to obey the hegemonic masculinity. In short, it is said that Chili suggests an imaginary exit from a boring everyday life as well as reflects the crisis and chaos of Chinese middle-age men in the 1990~2000's through the loss and recovery of masculinity of Bianrongda. The process exposes the duplicity of the masculinity of patriarchal societies and shows the masculinity can be a privilege and the oppression.

Key Words : 남성성(masculinity), 위기(the risk of the masculinity),
회복(the recovery of masculinity),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특권(privilege), 억압(oppression)

